

중앙일보

2016년 08월 31일 (수)
23면 지역

DMZ 1000리길 자전거로 달린다

〈고성 통일전망대~파주 임진각〉

내달 3~6일 '투르 드 DMZ 2016'
접경지역 첫 국제 스포츠 행사
9개국 선수 210명 등 2000명 참가

비무장지대(DMZ) 1000리길을 국내외 선
수와 동호인·지역주민 등 2000여 명이 자전
거로 함께 달린다. 행정자치부는 30일 "다
음달 3~6일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경
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434km 구간에서 '투

르 드 DMZ(Tour de DMZ) 2016' 국제청
소년도로사이클대회를 연다"고 밝혔다.
DMZ와 접경지역에서 열리는 최초의 국제
스포츠 행사로 행사부·경기도·강원도가 공
동 주최하고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한다.

이번 대회에는 스페인·프랑스·중국·일본
등 9개국에서 210명의 선수가 참가해 나흘
간 고성~인제~화천~철원~연천~파주 구간
을 달릴 예정이다. 이 중 고성 통일전망대~
검문소 3.8km와 철원 도창리통제소~대마리
통제소 30.1km 등 33.9km는 만통선 구간이다.

나머지 구간도 모두 접경지역으로 군부대
와 검문소를 수시로 지나게 된다.

특히 철원 양지리~대마리 15.6km 구간은
오른쪽으로 남방한계선 철책을 직접 바라
보고 달리며 분단 현실을 실감할 수 있도록
했다.

홍윤식 행사부 장관은 "전쟁과 냉전의 상
징이자 천혜의 자연이 보존돼 있는 세계 유
일의 지역인 DMZ에서 각국 청소년들이 참
여하는 국제 스포츠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
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"

라며 "이번 대회를 계기로 군사적 긴장과 각
종 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접경지
역의 경제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"고 말했
다. 친환경 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 문화
를 확산하려는 뜻도 담겨 있다. 현재 국내 자
전거 보급대수는 1022만 대로 전국 가구의
34.7%가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.

대회 첫날인 다음달 3일에는 고성~인제
구간에서 전국의 자전거 마니아 300여 명이
참가하는 마스터즈도로사이클대회도 열린
다. 인제·철원·연천 등 선수들이 지나는데
서는 지역별로 자전거 동호인과 주민 1500여
명이 함께하는 대규모 자전거 퍼레이드도 펼
쳐진다.

주최 측은 매일 구간별 레이스가 끝난 뒤



해의 선수단이 산촌박물관·통일전망대 등
각 지역의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할
계획이다. 홍 장관은 "앞으로 '투르 드 프랑
스(Tour de France)'처럼 세계적으로 권위
있는 국제사이클대회로 키워나갈 계획"이라
고 말했다.

박신홍 기자

bjjean@joongang.co.kr

29.4 X 7.8 cm